

## Hana Market Weekly

# 달러/원·엔·유로환율·금리·주식

외환파생상품영업부

2024. 10. 28

# 주간 달러/원 동향(10/21~10/25) 및 전망



## 주간 달러/원 동향

- 주초, 연준 관계자의 다소 매파적인 발언과 중국인민은행 금리인하 결정으로 인한 위안화 약세 영향 등을 반영하며 환율은 상승 출발. 이어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제기되며 글로벌 강달러 나타난 영향에 1,380원대에 재진입
- 중반, ECB 인사들의 비둘기 스탠스에 따른 유로화 약세가 달러 강세를 지지하는 가운데 중동 긴장 고조 등 위험회피 분위기에 추가 상승
- 후반, 당국 개입 경계감 속 일본 당국자의 구두개입성 발언이 견인한 엔화 강세에 강달러 압력이 완화되자 하락 전환. 이어 주 후반, 예상 밑돈 한국 3분기 GDP에 성장 부진 우려가 나타난 가운데 중국 MLF 동결로 인한 위안화 약세와 국내 증시 부진 등에 상승 후 1380원대 후반 마감

주간시가	주간고가	주간저가	주간종가	주간등락
1,369.6	1,390.4	1,366.4	1,388.7	+19.1

## 달러/원 전망

- 최근 중동 긴장 고조 등 위험회피 심리에 달러 강세 흐름이 탄력을 받은 가운데, 미국 소비심리 지표 개선 등 경제지표의 견조함 지속 등이 강달러 견인 요인으로 판단됨
- 여기에 그동안 주요하게 달러 강세를 이어오게 했던 미 대선의 '트럼프 트레이드' 이슈도 여전히 그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임
- 반면, G20재무장관 회의에서 한은 총재의 원화 절하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는 언급 및 부총리의 국감 환율 발언 예상 등 외환당국의 속도 조절 경계감 강화 등이 연고점 1,400원을 강하게 제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

예상거래범위
1,380원 ~ 1,395원

# 엔·유로화 동향 (10/21~10/25)



## 유로화 동향

- 주초, 독일 9월 생산자물가지수가 예상보다 큰 폭 둔화되는 등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유로화는 약세 출발. 이어 ECB 정책위원들의 빅컷 인하 가능성 언급 등 비둘기파적인 발언에 약세 폭을 확대
- 중반, ECB 금리인하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약세 흐름이 이어짐
- 후반, 예상을 웃돈 독일 제조업 및 서비스업 PMI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을 반영하며 달러 대비 강세를 보임. 이어 주 후반, 무디스의 프랑스 신용등급 전망 하향 조정 소식에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가 확대됨에 따라 1.07달러선에서 약세 마감

## 엔화 동향

- 주초, 트럼프 트레이드 영향 속 달러 강세와 미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미-일 금리차 확대에 엔화는 약세를 보이며 150엔대에 진입. 이어 연준 금리인하 속도 조절 전망에 미 국채금리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장중 153엔선까지 상승
- 중반, 인플레이션 목표치 도달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우에다 BOJ 총재의 비둘기 발언에 약세 압력이 확대됨
- 후반, 엔화 약세를 경계하는 일본 당국자들의 구두개입성 발언이 이어지면서 약세폭을 일부 되돌림. 이어 주 후반, 도쿄 근원 CPI 둔화와 일본 중의원 선거를 앞둔 불확실성 등에 약세폭 확대되며 152엔대 마감

주간시가	주간고가	주간저가	주간종가	주간등락
1.0866	1.0872	1.0771	1.0796	-0.0070

주간시가	주간고가	주간저가	주간종가	주간등락
149.5	153.2	149.1	152.3	+2.8

# 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(10/21~10/25)



## 주간 국고채 금리 동향

- 주초, 중국 인민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국고채 시장에 대한 영향 제한된 가운데, 전일 미 국채금리 하락과 아시아장에서의 외국인 국채선물 매수 영향 등으로 국고채 금리 하락 출발. 이어 미 대선 관련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 확대에 미 국채 금리 급등 영향 반영하며 장기 구간 중심으로 급등세 시현
- 중반 들어, 국제유가 상승 영향과 트럼프 트레이드 영향에 따라 미 국채금리가 상승했지만, 국내 3분기 성장을 속보치가 부진할 수 있다는 전망에 국고채 금리는 소폭 하락한 양상
- 후반 들어, 국내 3분기 GDP가 예상치 0.49%(전분기 대비)를 크게 하회하는 0.1%에 그친 충격이 반영되며 금리 하락에 영향 후, 주 후반 미 실업 지표가 부진을 보인 가운데 중동 이슈 휴전 소식 등에 따른 유가 하락으로 미 국채 금리 하락 영향 반영하며 국고채 금리도 하락 추세 마감

## 주간 증시 동향

- 주초, 코스피는 낙폭 확대에 따른 기관과 외국인의 반발 매수심리 강화 등으로 상승 출발. 이어 미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재정적자 이슈 확대에 따른 10년물 국채금리 급등 등 소위 '트럼프 트레이드' 영향을 반영하며 큰 폭 하락 전환
- 중반 들어, 주요 기업 실적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반도체 업종 등 하락 폭이 컸던 주요 업종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며 전일 큰 폭 하락 분기만 회된 국면
- 후반 들어, 미 증시가 트럼프 트레이드를 반영한 국채금리 급등에 전지수 하락 양상의 조정 영향 반영되는 가운데 국내 3분기 성장률 쇼크에 따라 투자심리 약화되며 재차 하락 전환, 주 후반 들어, 금융업종의 밸류업 공시에 코스피 상승을 주도했으나, 미 대선 관련 이슈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 순매도 등으로 '전강후약' 흐름 보이며 마감